

‘노른자 상권’ 롯데 월드컵점 부지 재계약에 관심

대규모 복합 쇼핑시설 조성이 급물살을 타며 광주지역 유통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의 재계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에 복합쇼핑몰 유치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롯데쇼핑이 월드컵점을 중심으로 재도약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위해 서구 풍암동에 건설한 월드컵경기장의 사후 활용 차원에서 롯데쇼핑과 맺은 운영권 계약이 오는 2027년 1월로 만료된다.

시는 월드컵 이후 시민의 혐세로 연 13억원에 달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적자를 메우는 대신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할인점 유치 계획을 세웠다.

부대 시설을 임대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추가 세수까지 확보하겠다는 복안으로 지난 2004년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했다.

운영권 만료 1년 앞…유통업계 치열한 물밑 경쟁 예고

광주시, 스포츠문화파크 조성에 복합쇼핑몰 가능성도

이후 시는 롯데쇼핑과 해마다 45억~80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2007년 1월 18일부터 2027년 1월 17일까지 2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장 내 토지 5만7594㎡와 건물 1만 8108㎡ 중 9289㎡까지 재임대 할 수 있는 전대이용계약도 맺었다.

계약이 끝나면 현 건물은 광주시로 기부채납 된다.

지역 유통업계에서는 계약 만료가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롯데쇼핑 측이 월드컵점 재계약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부지가 최근 지역 상권 노른자로

떠오르고 있고, 연간 2000억~3000억원 매출액을 달성하며 지역 대형마트 중 손에 꿈힐 만큼 꾸준한 이익을 내는 안정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최근 광주에 복합쇼핑몰 유치 바람이 불었음에도 롯데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현대와 신세계와의 점유율을 싸움에서 밀려 도태될 위기에 처한 점도 재계약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 측은 영업 환경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영업 지속성, 상권 특성, 사업성 전반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월드컵점이 복합쇼핑몰이 아닌 대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전경.

임대차계약이 2027년 만료되면 민자 유치를 통해 쇼핑몰과 문화복합시설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문화파크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는 계약 만료 전 단계로 아직 계약 논의나 세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6월 공유재산 관리방안 및 입찰 방침을 결정하고 8월 판매시설 입찰 공고 진행, 이후 12월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둔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남은 만큼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복합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쇼핑몰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체육과 문화, 여가 시설을 중심으로 하되 쇼핑몰이 입점하도록 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현대차 임직원들이 28일 울산공장 ‘H-안전체험관’ 기공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안전 의지 상징”…현대차, H-안전체험관 기공

울산공장서 노사 관계자들 ‘안전 문화 정착’ 다짐
하반기 개관…연간 2만명에 몰입형 교육 등 제공

현대차는 지난 28일 울산공장에서 물입형 안전 미디어 체험관인 ‘H-안전체험관’ 기공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현대차 국내생산담당 겸 최고안전보건책임자 최영일 부사장, 생산지원담당 정원대 부사장, 현대차노조 이종철 자부장, 이창민 수석부지부장 등 노사 관계자 200명이 참석했다.

H-안전체험관은 울산공장 부지 내에 설립될 연면적 926㎡(280평) 규모의 안

재화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이 중 세이프티존에서는 특수효과 기술을 활용해 연기가 기득한 화재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 사고체험존에서는 눈 앞에서 실제 크기의 자제차 충돌 시뮬레이션을 관람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를 하반기 개관 이후부터 연간 2만여명에게 몰입형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H-안전체험관은 최고 수준의 안전을 향한 현대차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라며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해 모든 구성원이 안전 의식을 내재화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현대차·기아, 내달 11~13일 설 명절 무상 점검

배터리·타이어 등 전국 서비스 거점 방문고객 대상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설 연휴를 맞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 특별 점검은 기본항목 점검(브레이크 패드·공조장치·타이어·등화장치), 엔진룸 점검(오일류·냉각수·워셔액

·배터리), 전기차 특화 점검(냉각수 및 고전압 배터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점검 후 부가 서비스로 워셔액도 무상 지급된다.

무상점검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 마이현대, 현대인증중고차, 기아 앱, 마이제네시스 등 각 브랜드의

고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무상점검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대차·제네시스 고객은 전국 블루핸즈, 기아 고객은 직영 서비스센터 및 오토 큐를 방문해 무상점검 쿠폰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으면 된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한 귀향길에 도움이 되고자 무상 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차량 점검 등 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완도 전복어가돕기

천지가 전복 설날 특판 할인

45,000부터 28,000원까지

다양한 전복 선물 세트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완도 아이들의 꿈을 키웁니다.
수익금 일부
완도 지역 장학금 후원
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완도 지역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으로 후원됩니다

주문 문의 010-4711-2098 / 061-555-2098

금호고속·금호건설 ‘이동형 버스 휴게실’

혹한기 건설 현장 근로자 휴게공간 마련…사계절 운영



금호고속이 금호건설과 협업해 혹한기 건설 현장 근로자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이동형 버스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동형 버스 휴게실은 작업 구간이 넓고 이동 동선이 긴 토목 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고정형 휴게실을 보완해 근로자

들이 작업장 인근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금호고속은 보유 중인 버스를 활용해 이동형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금호건설은 이를 신안 생비령국도, 송산 서측연결도로 등 토목 현장에 시범 적용해 했다. 버스 휴게실은 무시동 난방 설비를 갖춰 혹한기 추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며, 계절에 따라 냉방도 가능해 사계절 운영이 가능하다.

양사는 현장 반응과 운영 효과를 바탕으로 이동형 버스 휴게실 적용 현장

호남권 청년 일경험 확대 시동

광주상의, 사업 연계 방안 논의

광주상공회의소가 호남권 청년 일경험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청년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일경험 참여기업 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호남권 미래내일 일경험 활성화 거버넌스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호남권 고용 관련 기관과 대학일자리센터, 기업이 참여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호남권 지원센터의 지난해 사업 추진 실적과 올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이 보고됐다. 아울러 사업 개선 및 활성화 방안과 유관기관 일자리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호남권 일경험 지원센터는 올해 일경험 참여기업 80개사를 신규 발굴해 지역 청년과의 매칭을 지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